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및 권리 인식¹⁾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015년 1월 발생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기점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 자체가 증가하였다기보다는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들의 민감성과 보육교직원의 신고 의무자로서의 신고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 ‘보육과 유아교육은 미래사회 투자’라는 목표 하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로 어린이집·유치원의 양적 확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어린이집 유치원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한 아동학대, 건강 영양 안전, 보조금 유용 등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2015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와 함께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 CCTV 설치 의무화, 신고포상금 제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러나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고 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잠재적 아동 학대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그간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현황을 알아보고, 어린이집 보 육교사가 인식한 아동학대의 원인과 개선사항 등을 탐색하여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 하였다.

2. 아동학대 현황

가. 아동학대 빅데이터 분석

‘아동학대’ 키워드를 토대로 2004년 1월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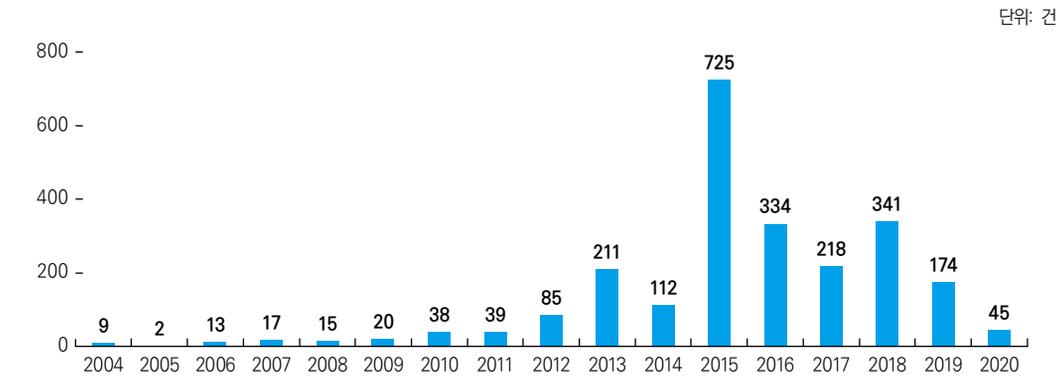
1) 본고는 양미선 외(201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와 양미 선 외(2020)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사회갈등 진단과 대응 방안」 연구결과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 성함.

2020년 6월까지 약 15년간 41개 언론사에 노출된 기사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기사는 2013년 21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725건으로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작성되었다. 이후 2018년까지 증감 추세를 보이며 꾸준히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기사화되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사건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1월 인천 송도 국제도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이 가장 높은 기사 발행

수를 보여준다. 이후 2015년 5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되었다. 2018년까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기사는 꾸준한 증감 추세를 보였고, 최근에는 CCTV 설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들이 기사화되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기사에 관한 워드 클라우드²⁾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사, 아동, 국민, 학대, 설치(CCTV), 부모 등에서 높은 TF-IDF³⁾ 수치를 보여주었다.



자료: 200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네이버 뉴스를 통해 언론사 41곳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를 수집한 결과임.

[그림 1]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기사 건수: 연도별



[그림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워드클라우드 분석

2) 워드 클라우드는 문서의 키워드, 개념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핵심 단어를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분석 기법 중 하나임.
3) TF-IDF는 알고리즘을 통해 도출되는 수치를 말한다. 하나의 문장에서 빈출수인 tf와 전체 문서 중 해당 단어가 등장한 문장의 비율을 나타내는 df에서 역수를 취한 idf를 곱하여 표현됨.

나. 아동학대 현황

1) 아동학대 신고자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2019년 기준 총 8,836건으로 이중 보육 교직원에 의한 신고건수는 448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5.1%를 차지한다. 2014년 273건(6.3%)에서 2018년 213건(2.3%)으로 전체 신고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반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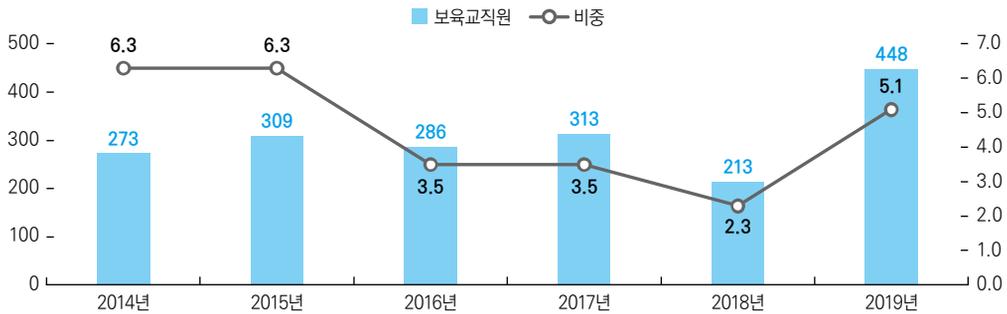
2)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2019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어린이집내

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1,371건으로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4.6%를 차지한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2014년 300건, 2017년 843건으로 상승하였고, 2019년에는 1,371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2019년 기준 37.371개소 중 약 3.7%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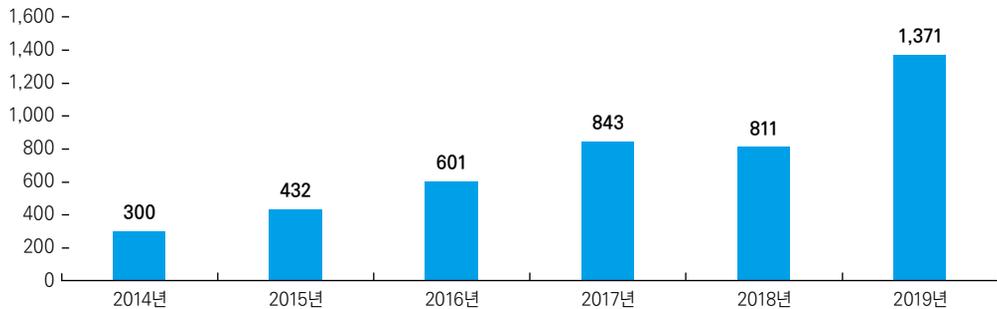
3)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2014년 295건에서 2017년에는 840건으로 크게 증가 하였으며, 2019년에는 1,384건으로 5년만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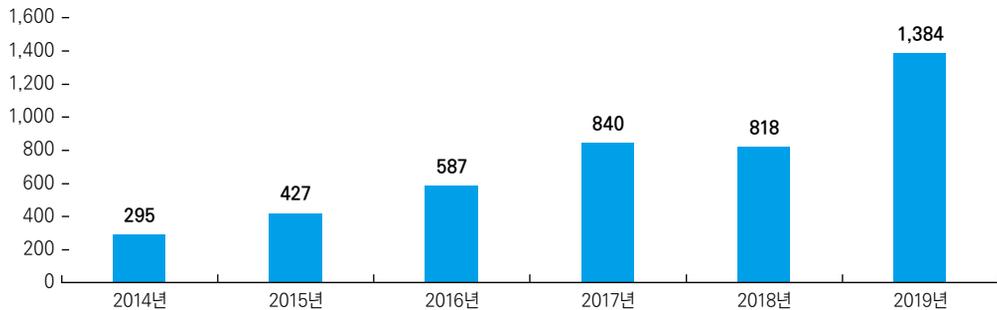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ncrc/main.do>) 2019 아동학대 주요 통계(2021.3.29. 인출)

[그림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보육교직원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ncrc/main.do>) 2019 아동학대 주요 통계(2021.3.29. 인출)

[그림 3] 아동학대 발생 장소: 어린이집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ncrc/main.do>) 2019 아동학대 주요 통계(2021.3.29. 인출)

[그림 4]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 및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가. 아동학대 원인과 예방

1) 아동학대 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요 요인을 아동요인, 교사요인, 환경요인 3가지 방향으로 알아보았다.

가) 아동 요인

보육교사 중 78.2%가 아동의 과잉행동, 공격적 행동, 반항 등의 행동문제를 꼽았으며, 12.2%는 주의산만, 불안, 애착문제를 비롯한 정서적 문제를 선택하였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보육교사는 행동문제를 꼽은 비율이 가정보다는 높고, 영아 비율이 높은 가정은 정서적 문제나 기질을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대도시보다 행동문제, 대도시는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정서적 문제를 아동학대 원인으로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 어린이집 아동학대 주요 원인 - 아동 요인

단위: %(명)

구분	기질	장애	정서적 문제 (주의산만, 불안, 애착문제)	행동문제 (과잉행동, 공격적 행동, 반항 등)	발달 문제 (언어, 신체 등)	기타	계(수)
전체	4.6	0.4	12.2	78.2	1.3	3.4	100.0(238)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2.0	-	10.2	81.6	2.0	4.1	100.0(49)
민간/법인단체등	2.6	1.3	11.5	79.5	2.6	2.6	100.0(78)
가정	7.2	-	13.5	75.7	-	3.6	100.0(111)
지역규모							
대도시	6.7	-	18.3	69.2	1.9	3.8	100.0(104)
중소도시	4.3	1.1	6.5	87.0	-	1.1	100.0(92)
읍면지역	-	-	9.5	81.0	2.4	7.1	100.0(42)

나) 교사요인

아동학대 원인이 교사 요인인 경우 주요 요인으로 보육교사 46.2%가 직무스트레스를 꼽았고, 29.8%는 감정조절 및 통제력 등 한계, 11.3%는 아동 문제행동 대처능력 부족을 들었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인 직무스트레스를 꼽은 비율이 민간/법인단체 등이나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법인단체 등은 감정조절 및 통제력 등의 한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대도시나

읍면지역은 직무스트레스, 중소도시는 감정조절 및 통제력 등 한계를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 환경요인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환경 요인인 경우 보육교사 48.7%가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꼽았고, 18.9%가 과도한 업무량, 11.3%는 장시간 근무시간, 7.6%, 7.1%는 각각 교사 처우와 교사 양성과정 문제 순이었다. 국공립/사회복지

〈표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주요 원인 - 교사요인

단위: %(명)

구분	직무 스트레스	정신 건강 문제	아동발달 등 전문성 이해 부족	감정조절 및 통제력 등 한계	아동권리 또는 인권 인식 부족	아동 문제행동 대처능력 부족	기타	계(수)
전체	46.2	2.5	4.6	29.8	3.8	11.3	1.7	100.0(238)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57.1	4.1	2.0	24.5	-	8.2	4.1	100.0(49)
민간/법인단체등	42.3	3.8	7.7	33.3	-	12.8	-	100.0(78)
가정	44.1	0.9	3.6	29.7	8.1	11.7	1.8	100.0(111)
지역규모								
대도시	51.9	1.9	4.8	25.0	3.8	11.5	1.0	100.0(104)
중소도시	38.0	3.3	4.3	34.8	4.3	14.1	1.1	100.0(92)
읍면지역	50.0	2.4	4.8	31.0	2.4	4.8	4.8	100.0(42)

〈표 3〉 어린이집 아동학대 주요 원인 - 환경요인

단위: %(명)

구분	장시간 근무 시간	과도한 업무량	교사 처우	높은 교사대 아동비율	교사 휴게시간 문제	교사 관리 부족	교사 양성 과정	교사 재교육 부족	어린이집/유치원 내 조직 문화	기타	계(수)
전체	11.3	18.9	7.6	48.7	1.3	0.8	7.1	0.4	2.1	1.7	100.0(238)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12.2	12.2	10.2	61.2	2.0	-	-	-	-	2.0	100.0(49)
민간/법인단체등	7.7	26.9	10.3	37.2	1.3	1.3	10.3	1.3	1.3	2.6	100.0(78)
가정	13.5	16.2	4.5	51.4	0.9	0.9	8.1	-	3.6	0.9	100.0(111)
지역규모											
대도시	12.5	23.1	8.7	46.2	1.0	1.0	4.8	-	1.9	1.0	100.0(104)
중소도시	12.0	12.0	7.6	52.2	-	1.1	9.8	1.1	3.3	1.1	100.0(92)
읍면지역	7.1	23.8	4.8	47.6	4.8	-	7.1	-	-	4.8	100.0(42)

법인은 높은 교사대 아동비율, 민간/법인단체 등은 과도한 업무량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도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1,2순위로 조사한 결과, 1순위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68.5%, 교사 처우가 18.1%, 교사 휴게시간과 교사 양성과정이 각각 4.2% 순이었다. 2순위는 교사 처우가 36.5%, 교사 휴게시간이 16.8%, 교사 대 아동비율 15.5%, 교사 양성과정이 11.8% 순이었다. 1,2순위를 합산하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84.0%, 교사 처우가 54.6%, 교사 휴게시간이 21.0%, 교사 양성과정 16.0% 순이었다.

나. 교사의 업무강도 및 스트레스와 아동학대 신고 인식수준

1) 업무강도 및 스트레스 높은 시간

〈표 4〉 아동학대 예방 위한 주요 개선사항: 1+2순위

단위: %(명)

구분	교사대 아동비율	기본교육과정/ 누리과정 시간	교사 처우	교사 휴게 시간	어린이집 내 조직 문화	교사 현직 교육	교사 양성과정	기타	계(수)
1순위	68.5	2.5	18.1	4.2	0.8	0.8	4.2	0.8	100.0(238)
2순위	15.5	6.3	36.5	16.8	5.1	4.7	11.8	3.4	100.0(238)
1+2순위	84.0	8.8	54.6	21.0	5.9	5.5	16.0	4.2	(238)

〈표 5〉 하루 일과 중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 1+2순위

단위: %(명)

구분	등원 시간	오전 자유 놀이	오전 간식 시간	급식 시간	낮잠 시간	오후 간식 시간	특별활동 시간	하원 시간	기타	계(수)
1순위	5.5	37.4	1.3	33.2	9.2	2.9	0.8	7.6	2.1	100.0(238)
2순위	6.3	19.7	0.4	29.4	16.4	3.8	3.8	15.9	4.2	100.0(238)
1+2순위	11.8	57.1	1.7	62.6	25.6	6.7	4.6	23.5	6.3	(238)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일과시간을 1,2순위로 알았다. 1순위로 오전 자유놀이시간이 37.4%, 급식시간 33.2%, 낮잠시간 9.2%, 하원시간 7.6%, 등원시간 5.5% 순이었다. 2순위는 급식시간이 29.4%, 오전 자유놀이시간이 19.7%, 낮잠시간 16.4%, 하원시간 15.9% 순이었다. 1,2순위를 합산하면 급식시간이 62.6%, 오전 자유놀이시간 57.1%, 낮잠시간 25.6%, 하원시간 23.5% 순이었다.

2) 아동학대 목격(발견) 시 대처행동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상황을 파악하였을 때에는 목격(발견)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원장 또는 동료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원장 또는 동료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을 때 조사에 참여한 보육교사 중 38.7%가 목격 즉시 신고한다고 답하였고, 48.7%는 고민, 2.1%는 못 본체한다고 답하였다. 기타 의견도 10.5%로 높았다. 가정어린이집은 목격 즉

〈표 6〉 아동학대 행위 발견 또는 목격 시 대처행동: 어린이집

단위: %(명)

구분	원장·동료교사 아동학대 행위 목격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견				계(수)
	목격 즉시 신고	고민	못 본 체함 (목인)	기타	목격 즉시 신고	고민	못 본 체함 (목인)	기타	
전체	38.7	48.7	2.1	10.5	51.3	36.1	0.8	11.8	100.0(238)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38.8	42.9	2.0	16.3	51.0	32.7	2.0	14.3	100.0(49)
민간/법인단체등	35.9	47.4	2.6	14.1	53.8	30.8	-	15.4	100.0(78)
가정	40.5	52.3	1.8	5.4	49.5	41.4	0.9	8.1	100.0(111)
지역규모									
대도시	42.3	46.2	2.9	8.7	51.0	38.5	1.0	9.6	100.0(104)
중소도시	37.0	54.3	1.1	7.6	52.2	34.8	-	13.0	100.0(92)
읍면지역	33.3	42.9	2.4	21.4	50.0	33.3	2.4	14.3	100.0(42)

주: 교육 이수 시 교육기관은 중복응답 결과임.

시 신고한다와 고민한다 둘 다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역에 상관없이 고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원장 또는 동료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 목격할 경우,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육교사 중 51.3%가 목격 즉시 신고한다, 36.1%는 고민한다고 답하였다. 못 본체한다는 의견은 0.8%로 소수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도시지역일수록 고민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견도 고민한다는 의견이 1/3이 넘는데 이 또한 신고에 따른 보복 등의 두려움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2항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⁴⁾.

보육교사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 중 99.6%가 2018년 한 해 동안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는 전혀 없었다. 제 특성별로도 전체 응답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기관을 추가 조사한 결과, 육아종합지원 센터가 80.2%로 가장 높고, 재직 중인 어린이집 46.8%,

4)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2항(<http://www.law.go.kr> 2019.6.25 인출).

〈표 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여부 및 교육기관: 어린이집

단위: %(명)

구분	교육 이수 여부				교육기관						
	1시간 이상 이수	교육 받지 않음	비해당 (미취업, 휴직 등)	계(수)	시도청	시도 교육청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유아 교육 진흥원	인권 교육 전문 기관	재직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수)
전체	99.6	-	0.4	100.0(238)	16.5	8.0	80.2	13.1	26.2	46.8	11.0 (237)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100.0	-	-	100.0(49)	20.4	8.2	85.7	8.2	34.7	49.0	10.2 (49)
민간/법인단체등	100.0	-	-	100.0(78)	17.9	10.3	74.4	15.4	25.6	56.4	10.3 (78)
가정	99.1	-	0.9	100.0(111)	13.6	6.4	81.8	13.6	22.7	39.1	11.8 (110)
지역규모											
대도시	100.0	-	-	100.0(104)	21.2	6.7	83.7	16.3	27.9	53.8	7.7 (104)
중소도시	98.9	-	1.1	100.0(92)	11.0	9.9	79.1	9.9	23.1	35.2	12.1 (91)
읍면지역	100.0	-	-	100.0(42)	16.7	7.1	73.8	11.9	28.6	54.8	16.7 (42)

주: 교육 이수 시 교육기관은 중복응답 결과임.

인권교육전문기관 26.2%, 시도청 16.5% 순이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 기관을 추가 조사한 결과, 육아종합지원 센터가 80.2%로 가장 높고, 재직 중인 어린이집 46.8%, 인권교육전문기관 26.2%, 시도청 16.5% 순이었다.

2)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 중 97.9%가 2018년 1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았고, 나머지는 미취업 및 휴직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제 특성별로도 전체 응답비율과 유사하지만,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이 95.9%로 낮았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기관을 추가 조사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80.7%로 높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기관 40.8%, 시도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유아교육진흥원이

각각 15% 내외 정도이었다. 제 특성별로도 전체 응답비율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라.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책

1) CCTV 설치

정부는 2015년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CCTV 도입 당시 교사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의무화가 이루어졌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교사 인권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 중 21.4%는 어느 정도 도움, 5.0%는 매우 도움이라고 답하여 26.4%만 CCTV 설치 의무화가 교사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도움정도는 5점 척도로 2.6점으로 중간 정도이다. 제 특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여부 및 교육기관: 어린이집

단위: %(명)

구분	교육 이수 여부				교육기관						
	교육 이수	교육 받지 않음	비해당 (미취업, 휴직 등)	계(수)	시도청	시도 교육청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아 교육진흥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기관	기타 (수)
전체	97.9	-	2.1	100.0(238)	16.3	8.2	80.7	12.4	14.6	40.8	16.7 (233)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95.9	-	4.1	100.0(49)	25.5	4.3	85.1	10.6	27.7	38.3	17.0 (47)
민간/법인단체등	100.0	-	-	100.0(78)	16.7	9.0	76.9	16.7	16.7	46.2	12.8 (78)
가정	97.3	-	2.7	100.0(111)	12.0	9.3	81.5	10.2	7.4	38.0	19.4 (108)
지역규모											
대도시	97.1	-	2.9	100.0(104)	21.8	5.9	81.2	9.9	12.9	43.6	10.9 (101)
중소도시	98.9	-	1.1	100.0(92)	8.8	9.9	81.3	13.2	12.1	37.4	20.9 (91)
읍면지역	97.6	-	2.4	100.0(42)	19.5	9.8	78.0	17.1	24.4	41.5	22.0 (41)

주: 교육 이수 시 교육기관은 중복응답 결과임.

〈표 9〉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의 교사 인권 보호에 대한 의견: 어린이집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음	도움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도움	매우 도움	계(수)	평균
전체	25.6	24.4	23.5	21.4	5.0	100.0(238)	2.6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30.6	24.5	22.4	22.4	-	100.0(49)	2.4
민간/법인단체등	25.6	19.2	20.5	25.6	9.0	100.0(78)	2.7
가정	23.4	27.9	26.1	18.0	4.5	100.0(111)	2.5
$\chi^2(df)/F$			8.9(8)				1.4
지역규모							
대도시	24.0	25.0	23.1	22.1	5.8	100.0(104)	2.6
중소도시	22.8	22.8	27.2	21.7	5.4	100.0(92)	2.6
읍면지역	35.7	26.2	16.7	19.0	2.4	100.0(42)	2.3
$\chi^2(df)/F$			4.5(8)				1.5

2) 교사의 인권 보호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알아보았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16.8%는 어느 정도 보장, 2.9%는 매우 보장이라고 답하여 교사의 인권이 보장되었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19.7% 정

도로 낮았다. 교사의 인권 보장 정도는 5점 평균 2.6점으로 중간 이하이었다. 절반 정도는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민간/법인단체 등과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보다 교사의 인권 보장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주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62.1%가 학부모를 꼽았고, 30.2%는 원장, 아동이나 동료교사는 각각 1.7%로 소수이었다. 가정어린이집은 원장,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은 학부모를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권교육 참여 여부 및 참여 시 교육기관을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 중 69.3%가 인권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보

다 민간/법인단체나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상대적으로 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높고, 도시지역일수록 참여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권교육 참여 시 교육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73.3%로 다빈도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인권교육전문기관 23.0%, 시도교육청 8.5%, 시도청 7.9% 순이었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인 경우 시도청이나 인권교육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도시지역일

〈표 10〉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의 교사 인권 보호 정도: 어린이집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보장되지 않음	도움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도움	매우 도움	계(수)	평균
전체	16.0	32.8	31.5	16.8	2.9	100.0(238)	2.6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28.6	38.8	14.3	16.3	2.0	100.0(49)	2.2
민간/법인단체등	15.4	28.2	29.5	24.4	2.6	100.0(78)	2.7
가정	10.8	33.3	40.5	11.7	3.6	100.0(111)	2.6
$\chi^2(df)/F$			-				3.4*
지역규모							
대도시	13.5	37.5	29.8	17.3	1.9	100.0(104)	2.6
중소도시	14.1	28.3	38.0	15.2	4.3	100.0(92)	2.7
읍면지역	26.2	31.0	21.4	19.0	2.4	100.0(42)	2.4
$\chi^2(df)/F$			-				1.0

* $p < .05$

〈표 11〉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침해 주체

단위: %(명), 점

구분	아동	동료 교사	원장	학부모	기타	계(수)
전체	1.7	1.7	30.2	62.1	4.3	100.0(116)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	-	24.2	75.8	-	100.0(33)
민간/법인단체등	2.9	2.9	29.4	64.7	-	100.0(34)
가정	2.0	2.0	34.7	51.0	10.2	100.0(49)
지역규모						
대도시	3.8	1.9	26.4	62.3	5.7	100.0(53)
중소도시	-	2.6	33.3	61.5	2.6	100.0(39)
읍면지역	-	-	33.3	62.5	4.2	100.0(24)

수록 육아종합지원센터, 읍면지역일수록 인권교육 전문기관에서 받았다는 비율이 높았다.

교사 대상 인권교육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48.3%는 교사대상 인권교육이 아동학대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고, 8.4%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하여 동의비율이 56.7%로 절반이 넘으며, 동의 정도는 5점 평균 3.5점이었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대도시, 규모가

클수록 동의비율이 높다. 그러나 동의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는다.

마.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 확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대상으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만 그 이외의 아동이나 다른 교사 대상으로는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표 12〉 인권 교육 참여 여부 및 교육기관 유형

단위: %(명)

구분	참여 여부			참여 시 교육기관					
	참여 경험 있음	(수)	시도청	시도 교육청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아교육 진흥원	인권교육 전문 기관	기타	(수)
전체	69.3	(238)	7.9	8.5	73.3	6.7	23.0	10.3	(165)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65.3	49)	15.6	3.1	75.0	9.4	31.3	12.5	(32)
민간/법인단체등	70.5	(78)	5.5	7.3	67.3	3.6	23.6	16.4	(55)
가정	70.3	(111)	6.4	11.5	76.9	7.7	19.2	5.1	(78)
지역규모									
대도시	78.8	(104)	11.0	6.1	81.7	6.1	20.7	4.9	(82)
중소도시	64.1	(92)	3.4	13.6	69.5	8.5	23.7	11.9	(59)
읍면지역	57.1	(42)	8.3	4.2	54.2	4.2	29.2	25.0	(24)

〈표 13〉 보육교사 대상 인권 교육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평균
전체	2.5	7.6	33.2	48.3	8.4	100.0(238)	3.5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2.0	8.2	26.5	55.1	8.2	100.0(49)	3.6
민간/법인단체등	2.6	7.7	32.1	51.3	6.4	100.0(78)	3.5
가정	2.7	7.2	36.9	43.2	9.9	100.0(111)	3.5
$\chi^2(df)/F$			-				0.2
지역규모							
대도시	1.9	10.6	26.9	51.9	8.7	100.0(104)	3.5
중소도시	2.2	7.6	39.1	40.2	10.9	100.0(92)	3.5
읍면지역	4.8	-	35.7	57.1	2.4	100.0(42)	3.5
$\chi^2(df)/F$			-				0.9

〈표 14〉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사례관리의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아동 사례관리				교사 사례관리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전체	61.8	31.1	100.0(238)	3.2	60.9	32.8	100.0(238)	3.3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51.0	38.8	100.0(49)	3.3	53.1	40.8	100.0(49)	3.3
민간/법인단체등	57.7	33.3	100.0(78)	3.2	59.0	37.2	100.0(78)	3.3
가정	69.4	26.1	100.0(111)	3.2	65.8	26.1	100.0(111)	3.2
$\chi^2(df)/F$				0.3				2.3
지역규모								
대도시	63.5	27.9	100.0(104)	3.2	63.5	30.8	100.0(104)	3.3
중소도시	65.2	29.3	100.0(92)	3.2	60.9	30.4	100.0(92)	3.2
읍면지역	50.0	42.9	100.0(42)	3.4	54.8	42.9	100.0(42)	3.4
$\chi^2(df)/F$				1.2				1.6

이에 아동학대 발생시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른 아동이나 재직 교사 대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의견을 알아보았다.

먼저 아동 사례관리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61.8%는 필요, 31.1%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여 92.9%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 정도는 5점 평균 3.2점으로 중간 이상이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에 대한 사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제 특성별로도 차이가 없었다.

4. 정책과제

가. 아동학대 예방에서 권리 보호로 교육의 관점을 전환한다.

어린이집과 부모 간의 신뢰회복은 아동의 권리보장은 물론 교사의 인권이 보장되었을 때 가능하다. 어린이집이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식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보다는 아동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인권교육으로 교육의 관점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나. 아동권리보장 교육을 강화한다.

교사 및 원장 교육을 비롯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 대부분 아동권리 보장에서부터 아동학대 처리 절차까지로 방대하게 구성되어 있어 교육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 예방보다는 아동 권리보장 차원에서 교육을 추진해 나간다.

다. 부모 대상 아동권리(인권) 교육을 의무화한다.

2015년 아동학대 사건 이후로 CCTV가 의무 설치되면서 부모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그 부작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2018년 강서구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자살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최근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무혐의 처리되어 피해 어린이집을 비롯한 교사들까지도 아동학대 피해 아동 부모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부모 자신도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더 나아가 아동을 보호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장에 대해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99.6%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장 또는 동료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을 때 어린이집 보육교사 38.7%만 목격 즉시 신고한다고 답하였고,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절반 정도인 51.3%만 목격 즉시 신고한다고 답하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재원 아동 및 교사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의무화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학대 피해 아동 대상으로 사례관리가 실시되고 있지만,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아동(부모 포함)과 교사는 사례관리

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발생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부모 포함)뿐만 아니라 교사가 아동학대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및 사례관리 기관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바. 부모 대상 아동학대 신고 및 CCTV 열람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원장 및 부모, 관계 기관 면담에서 부모들이 아동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CCTV 열람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에서 다수의 피해가 파악되었다. 부모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CCTV 열람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사. 어린이집의 열린 운영으로 기관과 부모 간의 신뢰를 강화한다.

정부는 매년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정책을 펴고 있다. 2017년 우수형 100개소, 지자체형 1,000개소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사건으로 부모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 어린이집의 개방성을 높이고,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신뢰를 회복한다.